

광주는 줄고 전남은 늘고 2분기 인구 순이동 '대조'

광주 순유출 2천854명 20대 가장 많아 전남 679명 순유입...무안 등 13곳 늘어

올해 2분기 광주와 전남의 '인구 이동'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광주는 순유출이 이어지며 인구가 감소한 반면 전남은 증가세를 나타내 상당한 양상을 보였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 인구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2천854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올해 1분기 4천945명의 순유출에 이어 반면 만에 7천799명이 광주를 빠져나갔다. 자치구 별로는 북구(-1천516명), 서구(-752

명), 동구(-517명), 남구(-155명) 순으로 순유출이 많았고 광산구(86명)만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입이 늘었다.

연령대별 인구 순유입은 10대 미만(16명), 70세 이상(51명)에서만 이뤄졌다.

특히 20대(-1천300명)와 30대(-631명)의 순유출 비중이 67.6%를 차지했다. 이는 학업과 취업으로 인한 순유출이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반대로 전남은 올해 2분기 전출자보다 전입자가 많아 679명이 순유입됐다.

자치구 별로는 목포(-1천37명), 여수(-582명), 순천(-247명) 등 9곳에서 순유출이 많았다. 반면 무안(692명), 영광(462명), 장성(439명), 신안(416명) 등 13곳의 순유입이 늘었다. 이는 인구 소멸 대응 정책, 신규 아파트 단지 등 복합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인구 순유출은 10대(-155명)와 20대(-997명) 등에서 이뤄졌으며 30대(239명), 40대(367명), 50대(825명)의 인구 순유입이 많았다.

한편 올해 2분기 광주와 전남지역의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 0.4%, 0.2% 하락했다. 광주는 50대와 30대 등에서, 전남은 50세 이상에서 주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광공업생산자수는 전기장비 등 생산이 늘어 11.3% 증가했고 전남은 -1.7% 감소했다. 건설 수주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건축·토목 수주가 모두 줄면서 지난해 대비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광주의 건설수주액은 1천4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6.4% 감소했고 전남도 1조378억원으로 39.0% 줄어 들었다. /안태호기자

국장 2분기 실적 마감...눌려있던 업종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8월 첫째 주 세계 개편안 충격으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는 수출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와 삼성전자의 테슬라·애플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등 호재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 3,2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4.7% 오르며 한 주간 기준 세계 주요국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 강한 반등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중 관세협상, 여당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상존했다.

시장은 호재와 악재에 민감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종목별 급등락이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도 실적에 따라 기업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미용업종 내 에이피알은 호실적 발표에 한 주간 35% 급등한 반면, 비교기업으로 자주 언급되던 달바글로벌은 예상치를 하회한 영업이익 발표에 한 주간 상승 폭을 금요일 하루 만에 NXT 시장(거래시간 연장시간 주식 대체거래소)에서 대부분 반납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로는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회담이 꼽힌다. 15일 트럼프와 푸틴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자 회담 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한화에너지, LG넥스원, 현대모템 등 국내 대표 방산주들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회담이 또 미중 관세협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증시에 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로 투자자들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삼성전자이다. HBM 기술격차,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수출 문제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경쟁력이 뒤쳐지는 모습을 보였던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2조원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에 이어 7일에는 애플의 이미지센서(CIS)도 수주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5만 전자였던 삼성전자는 어느새 7만원대를 회복했고 미국 메일라 공장에 10조원 규모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등 하반기 실적 반전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악재는 이미 대부분 반영됐다는 것이다. 최근 샘플을 공급한 HBM4에서 미국 빅테크들의 긍정적인 초기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3분기 스마트폰에서도 갤럭시 폴드7 초반 반응이 뜨겁다. 컴컴한 터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가 다시 비상할 수 있을지 하반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 고용 쇼크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입됐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2번 또는 3번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12일 발표될 미국 CPI(소비자 물가지수)와 14일 발표될 미국 PPI(생산자 물가지수)가 파울 연준 의장의 태도를 결정지울 것으로 보이고 위 지표들이 기대치에 준하는 정도만 나오게 되더라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더욱 기정사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파울 의장은 8월 말 예정인 잭슨홀 퍼런스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리 인하 기대가 부재했던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견조한 실적이 재차 확인되면서 그레벨을 높여왔다. 그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제약했던 관세 불확실성 역시 이후부터는 수면 아래로 점차 내려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요 무역국과의 협상 결론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용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며 미국 측이 여러모로 더 유리한 조건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그 파급력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화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에서 그치지 않고 상방을 재차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시장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8월은 국장, 미장 모두 전통적으로 관망세가 고조되는 시기이지만 매수 관점을 늘 염두해 두어야 된다.

국내시장은 이번 주까지 2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는 시기로 그간 강했던 조선·방산·화학 품 등은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와 반대로 실적 기대감이 크지 않아 주가가 눌려있는 바이오·지주사·로봇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역 K-푸드 콘텐츠로 아세안 시장 공략”

중진공 지역본부, 해외시장 확대 모색

베트남 진출 협업 사업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 지역본부·호남연수원은 12일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광주·전남 K-푸드 베트남 진출 협업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전남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지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총 30여명의 참여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업 프로그램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작 지원하는 여성 풋살 예능 콘텐츠 ‘달차녀FC 시즌2’와 연계해 K-콘텐츠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수출 가능성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달차녀FC 시즌2’ 콘텐츠와 지역 식품기업 제품을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안이 발표됐으며 중진공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협업을 통해 ▲고비즈코리아 베트남 K-푸드 전용관 운영 ▲aT 온라인 한국식품관(틱톡샵) 입점, AI기반 홍보 풋살 영상 제작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수출 지원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호남연수원은 12일 전남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광주·전남 K-푸드 베트남 진출 협업 프로그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제공>

특히 국내 여성 풋살 경기 우승팀은 베트남 국가대표 코치인 이은재 선수와 함께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를 갖게 되며 전 과정을 베트남 현지 K-푸드 소비자 감성과 정서에 부합하도록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로 제작돼 베트남 현지에 송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전통적인 수출 지원방식을 넘어 ▲AI 리포터와 실사 기반의 풋살 영상 제작 ▲풋살 경기장 내 A보드 광고 및 콘텐츠 가상 광고 ▲선수단의 생활을 활용한 PPL 광고 등 다채로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수단을 결합해 K-푸드

브랜드 친밀도와 구매 유도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한식 체험 행사와 K-콘텐츠 교류행사가 진행되며 연말에는 “2025 한베 우정의 거리축제”에 지역 식품기업 전용 부스를 설치해 실질적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우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출 지원을 넘어 지역 K-콘텐츠와 식품기업이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선도 사례”라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ASEAN 시장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 홈페이지 : idolbom.go.kr

“여행의 모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캐논라이브

[호주 퀸즐랜드 여행 편]

2025 여름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 2025년 6월 23일(월) ~ 8월 31일(일)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 2025년 6월 23일(월) ~ 9월 8일(월)

캐논스토어 | 062)522-2000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캐논코리아총판 | 062)350-8397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동1층 139호)